

탐방 포항교사불자연합회



포항교사불자연합회는 11월 포항삼교회의소에서 철종스님(피계사 성전임조실)을 초청한 가운데 불교사상강연회를 가졌다.

학생포교 초석 다지는 모임

불교사상강연회 개최 '학생지도 방안' 연구

포항에서는 2년마다 수많은 사찰과 수행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불교사상강연회가 열린다. 포항불교교사회(회장 이동선·상도종교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번째로 모임의 입지를 구축하고 포교에 이바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열린 행사에서는 북한어린이들기 모금함을 설치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포항지역 관내 90여 초·중·고 불교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89년 2월, 학생포교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효율적인 수행활동을 펴기 위해 해사였다. 회원수는 80여명, 한때 회원가입이 주춤한 적이 있었으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차츰 늘고 있는 추세다.

포항불교교사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저녁7시 죽림사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여기서는 여느 법회와는 색다른 프로그램

으로 진행된다.

먼저 회원들이 앞에 나와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경위를 밝히는 '나의 불연' 코너, 상대방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두번째는 '불자상식' 강좌, 회원중에서 조계종 포교사를 겸하고 있는 3명의 선생님들이 불교사상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으로 회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세번째는 '여시아실' 시간. 이동선 회장이 금강경의 구절을 대해 발제하면 회원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시간으로 일종의 경전토론회인 셈.

이와같이 포항불교교사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여자향적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자발적인 모의주장과 일상에서의 실천수행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지순례나 하계수련회도 개최하고 타 지역 교사불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실속있는 수행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회장은 "불교학생회 개설 등을 통해 학생포교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직장불자회 자매결연 새바람

서울청·불자약사보리회 매월 무료검진 봉사 활발

기관차법우회·중계복지관 성지순례·노인 위안잔치

경희의료원·불자가족회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정기법회를 통한 자체 수행활동 외에 대외 활동에 소극적이던 직장 불자회(회장 장만식)는 96년 서울시립 중계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맞게 됐다. 개신교, 천주교 모임과 더불어 매월 복지관에서 법회를 여는 것은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의 몫. 그 뿐 아니다. 정기적으로 거동 불편한 수용노인들과 함께 사찰순례를 다녀오거나 위안잔치도 개최한다. 법우회 허기림 지도법사는 "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복지관 사업에 동참하면서 간접적인 포교효과는 물론 회원들 각자가 나누는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포항 운전불자기서연합회(회장 권용재)는 확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을 맺으면서 사업방향을 확대수정했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포교사라는 긍지로 '달리는 법당' 택시를 모는

실천행을 모의취지로 발전시킨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96년 서울시립 중계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맞게 됐다. 개신교, 천주교 모임과 더불어 매월 복지관에서 법회를 여는 것은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의 몫. 그 뿐 아니다. 정기적으로 거동 불편한 수용노인들과 함께 사찰순례를 다녀오거나 위안잔치도 개최한다. 법우회 허기림 지도법사는 "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복지관 사업에 동참하면서 간접적인 포교효과는 물론 회원들 각자가 나누는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포항 운전불자기서연합회(회장 권용재)는 확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을 맺으면서 사업방향을 확대수정했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포교사라는 긍지로 '달리는 법당' 택시를 모는



서울 시설관리공단 청정회 창립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뵈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서원하여 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

으로 발원하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불자모임 청정회가 불자직원들의 지극한 발원 속에 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립했다. 청정회는 회장장을 따로 두지 않고 몇몇 실무부장을 주축으로 전 회원이 주체가

때 조직을 운영한다. 김홍렬 총무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연이 닿지 않아 부처님 법을 배우고 널리 퍼지 못했다"면서 "청정회 창립을 계기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범이 되는 불자로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사 남전삼(경애사 주지)은 법에서 "절에 처음 와 내는 마음이 초심(初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초심이다"며 "앙의 맑고 적음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한마음을 받치는 초발심의 신심으로 청정회를 꾸려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정회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5시(장소 미정)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재적사찰 지정 및 체계적인 교리 공부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성해스님 선 서화전 개막

성해스님(선학원 중앙선원장)이 백상기념관에서 18일까지 '만공대선사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선서화 작품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지혜인' '반야심경' 등 초서에 일가견이 있는 성해스님의 서예를 비롯 원담·철웅·탄허·구산스님 등 선화 등 1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회 수익금은 선학연구자와 선수행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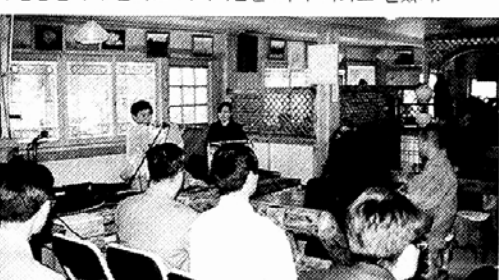
조계사청년회장 취임식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조계사청년회 전준호 회장, 이문수·강정운 부회장 등 제18대 신임 회장단 취임법회가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청년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전준호 신임 회장은 81년 조계사 학생회 활동을 시작 오를까지 청년회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총무원장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구 지산정사 석가모니불 점안법회

대구 수성구 지산정사(주지 선타)는 10일 석가모니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석가모니불은 석자크기로 복장은 30여가지 성물이 봉안됐다. 조계종원로의 부의장 도원스님을 비롯 사부대중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선타스님은 "사찰낙성식은 내년에 할 예정"이라며 "지산정사는 불자들의 수행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무각사 다윈 예술제

광주 삼우지구 무각사(주지 공민)는 5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다윈예술제를 열고, 길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심신을 북돋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음악회와 화사각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 이번 예술제에는 대금 명인 원정현씨가 '날개' '낙화' '소쇄원' 등을 연주했다.

"상대존중하는 불자 되자" 금용단 불교련 합동법회

전국금용단불교연합회(회장 김운하)는 6일 조흥은행 본점 강당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합법기념 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는 회원들의 발원문 낭독에 이어, 전국금용단 불교연합회 약사보고, 회장단 인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전 교육원장 암도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가짐이 건실할 때 올바른 몸가짐과 실천이 따를 수 있다"며 "신(身)·구(口)·의(意) 3업



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를 명심해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농협 중앙회 한빛은행 금융감독원 불교회 등 금융단불자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광주운불련은 21일 광주 구각

광주 운불 장애인 나들이

광주운불불자기서연합회(회장 김운문)는 10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광주 우산복지회관과 공동으로 장애인 가을 단풍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12명의 광주 운불련 회원이 차량봉사에 참여해 보성 대원사, 승주 낙안읍성, 선암사를 순례하고 장애인들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을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광주운불련은 21일 광주 구각

우리 모임에선

무량회 8돌 기념법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원배)는 3일 올림픽회관 1층 법당에서 창립 8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불자회원 1백여 명과 한전 반야회, 시설관리공단 청정회 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 2부 한국불교연구원 정

무량회 8돌 기념법회

병조 원장(동국대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로 마련됐다. 노무현의원 후원의 밤 국민회의 연동회 부회장 노무현 의원(부총재)은 3일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실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노무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education courses. Title: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Content: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초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를 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 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 개강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사상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Advertisement for Buddhist education courses. Title: 정토 단전호흡 실습생 모집. Content: 우리 인간은 물질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다. 정토 단전호흡을 바로 알고 배우면 탐진치를 없애고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으며,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생활 수행이오니 건강을 위해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집인원: 1. 강의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2. 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 강사: 채윤석 법사, 4. 회비: 월 3만원(실습교재 제공).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동산반야회 동산문화센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Advertisement for Buddhist education courses. Title: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Content: 아미타 부처님을 신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민일회에 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한국정토사·영종집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왕생론·반주삼매경·무량수경요·보광삼매론·미타에갈법·정토미술. 교수진: 한보광스님(동국대)·장휘욱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태 윈스승(승가대) 주정명교수(동국대)·정태희교수(동국대) 강동균교수(동아대)·김영미교수(이화대) 해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정구반(100명) 불교를 적극 신봉 하고자 하는자. 지원자격: 입학시험·주인등록증·1등·반명함판사진 3매. 원서교부·접수: 99년 11월 1일~99년 11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강의일시 및 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비고: 동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 수감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12월 2일(목)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서울: 보현각(조계사앞) ☎ 02)733-0333 부산: 불 서 보급 사 ☎ 051)246-4321 대구: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대전: 보 문 서 점 ☎ 042)257-0161 광주: 불 일 서 점 ☎ 062)232-7542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상과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아미타정토대학